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과 해당 저자의 소유입니다.  
비상업적,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빠의 기행

국립극단

작  
백하룡

연출  
최진아

<빠의 기행> (백하룡 작)은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2019년 5월 31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초연되는 창작극입니다.

일시  
2019년 5월 31일(금)  
~ 6월 16일(일)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 극작가

## 주요작품

<고제> <남산에서 길을 잃다>  
<전명출 평전> <한중록>  
<파행> 외

## 수상내역

2007 거창국제연극제  
세계초연 희곡공모 당선  
2006 대산창작기금  
희곡부문 선정  
2004 서울연극제 희곡상  
2001 예장문학상 희곡 부문

여기 갈 곳 없어 정처 없는 뼈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매개로 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표면의 배후에는 한 시대와 현재의 우리의 태도가 슬며시 은유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표면의 직유로 읽으셔도 좋고 그 이면의 은유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번 작품은 제겐 멜로드라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격정적인 연애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독한 애증이 있고 몸살 걱정이 있고 무엇보다 서글픈 감정이 있습니다. 아스라한 서글픔 — 한 역사와 시대를 이렇게 정서로 비껴 말하는 것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화석이고 교과서로 읽히는 탓입니다. 다시 우리 곁으로 소환하고 싶은 완벽한 방식이었습니다.

매번 글은 어려웠지만 이번에도 유난했습니다. 한 줄은커녕 한 자도 몸서리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내 아버지를 한번은 만나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결국 맞닥뜨린 것은 나였습니다. 그것은 못난 나였으며 또 못된 나였습니다.

어쩌면 극중 인물인 준길과 학중은 그것들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사연과 삶들이 다르겠지만 이 연극을 통해 관객들도 나름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여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더해진다면 저는 또 얼마나 다행일까요.

누군가 윤동주의 별헤는 밤 이외의 모든 호명들은 사족이고 부연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필 씁니다. 매일새벽 카톡으로 수정할 부분 보내주셔 아침잠을 없애주신 연출님에게, 또 못난 작품 함께한 모든 배우님들과 스태프 분들에게, 그리고 시놉시스 단계부터 인내로 기다려주신 예술감독님과 여러 피디님에게 애뜻하고 고마운 마음 덧붙입니다.

준길은 아버지와 별헤는 밤 이외의 모든 호명들은 사족이고 부연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필 씁니다. 매일새벽 카톡으로 수정할 부분 보내주셔 아침잠을 없애주신 연출님에게, 또 못난 작품 함께한 모든 배우님들과 스태프 분들에게, 그리고 시놉시스 단계부터 인내로 기다려주신 예술감독님과 여러 피디님에게 애뜻하고 고마운 마음 덧붙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극 중 '사내'와 '소년'의  
실제 모델)



극단 놀땅 대표

주요작품

<오이디푸스-알려고 하는 자>  
<홍준씨는 파라오다> <본·다>  
<1동 28번지, 차숙이네>  
<그녀를 축복하다>  
<사랑, 지고지순하다>  
<연애 애기 아남> 외

수상내역

2017 루마니아 바벨페스티벌  
연출상 <오이디푸스 -  
알려고 하는 자>  
2010 제18회 대산문학상 희곡상  
<1동 28번지, 차숙이네>  
2006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사랑, 지고지순하다>

어려서 아버지의 수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해마다 수첩을 사셨는데  
수첩의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셨고, 어떨 때는 줄로만 된 것을,  
어떤 때는 주간별로 구획된 수첩을 사셨습니다.  
거기에는 몇 월 몇 일 돈 얼마 들어옴. 누가 얼마를 갚음.  
뭐 이런 것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관심이 안 갔지요.  
그러다가 간혹(아버지는 당신의 필체를 못마땅해 하셨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부러워라 하셨습니다.)  
문장들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 다녀가다... 무엇을 한 꾸러미 사들고 오다... 쓸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때 아버지의 필체를 보는 것이 신기해  
좀 유심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획을 힘주어 쓰셨어요. 글자 크기는 좀 큰 편이었고요.  
그래서도 손바닥 두 개 크기인 수첩에  
많은 내용을 구구절절 쓰지 못하셨겠지요.  
그 수첩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전에 못 보았던 것들이 보일까요?  
꼭꼭 눌러쓴 글자들만큼 깊이 박힌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연극은 준길의 여행이야기입니다.  
참 칠순노인이 기력도 좋지요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기어이 본인 뜻대로 하시겠다고 막무가내십니다.  
아무도 아버지편이 없습니다.  
자식도 조카도 우연히 만난 중국동포도 다른 걸 원합니다.  
본인이 외로울지, 주변 사람이 더 외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연극을 할 때마다 새삼 느낍니다.  
어느 장면하나 혼자 뜻으로는 안 되고,  
이 작품 하겠다고 모인 모두. 작가, 배우, 스태프들의  
애정과 열의로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관객들에게 좋은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 왜 혼자  
보냈습니까.  
  
한 번 어긋나니  
이렇게 영  
맞출 도리가  
없는 것을...”

인생 끝자락에 선 70대의 백준길은 평생을 버트던 숙원사업에 착수한다. 이름하야 유골 이장 대작전. 어린 시절 이별해서 임종도 못 지킨 부모님을 ‘빠라도 모셔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길을 떠난다. 초반부터 심하게 삐걱대는 여행길이 순탄할 리가 없다. 아들부터 조카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기에 바쁘고 급기야 가방 속 부모님의 유골까지 이리저리 섞어버려 역장이 무너진다.

In the twilight of his life, 70-something Baek Jun-gil undertakes a new project to fulfil his lifelong ambition—he wishes to move the graves of his parents. Separated from his parents at a young age, he couldn't even stay by their sides when they passed away. Determined to 'at least bring back their bones', he embarks upon a reckless journey. However, it gets off to a rocky start, and he runs into a series of difficulties. Everyone around him, including his son and nephew, interferes with his plan instead of offering help. To his utter dismay, the remains of his parents get all mixed up in his bag.

박상중  
Park Sang-jong



준길  
JunGil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 <특목> <고도를 기다리며>  
<이방인> <1945> <오이디푸스> <갈매기> <카페신파>  
<햄릿프로젝트> <내마> 외

이준영  
Lee Jun-young



학종, 중국공안  
HakJong

<바다의 아이들> <선을 넘는 자들> <오이디푸스-알려고 하는 자> <흔들리기>  
<1등 28번지 차숙이네> <망우리 만복아> <벚나무 동산> <그녀를 축복하다>  
<홍준씨는 파라오다> <칼리콜라> <본.다> <브루스니까 숲> 외

성여진  
Sung Yeo-jin



순영, 중국인 승객  
SunYeong

<선사인의 전사들> <단지 세상의 끝> <얼굴도둑> <망각의 방법> <1984> <1945>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빨기에 물고기> <연변엄마> <너를 향해 활짝>  
<두 코리아의 통일> <돌연히 멈춤> <생각나는 사람> 외

강해진  
Kang Hae-jin



영욱, 중국인 승객, 조선 이주민  
YoungUk

<록앤롤> <오슬로> <두드려라 맥베스> <성> <선을 넘는 자들>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유리디스> <재생불량소년>  
<백묵원 유전유죄 무전무죄> <꽃과 건달과 피자와 사자> <출업작품>  
<해경궁 흥씨> 외



이수미  
Lee Su-mi



심가, 중국동포 주민  
Ms. Shim

<자기 앞의 생> <텍사스 고모> <운명> <처의 감각> <3월의 눈> <햄릿릿햄>  
<손님들> <반산> <마늘먹고 씹먹고> <백베드> <템페스트> 외

수상 2019 제55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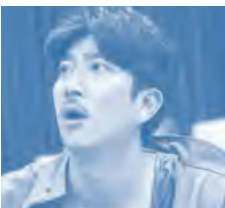
이호철  
Lee Ho-cheol



황가, 중국인 승객, 중국동포 주민, 조선 이주민  
Mr. Hwang

<오솔로> <얼굴도둑> <3월의 눈> <카프카의 소송> <관속에 갇힌 6인의 이야기>  
<거인이 걸어오고> <굴레방다리의 소곡> <휴먼코메디> <크리스토퍼 논란 클럽>  
<보이책> <죄와벌> 외

조남용  
Cho Nam-yung



사내, 중국인 승객, 중국동포 주민, 중국 공안  
A man

<오솔로> <페스트> <히키키키> <벨마와 프랭키> <벚꽃동산> <RISK>  
<The Red> <더 러버 & 리뷰스캐치> <My Girl> <필로우맨> 외

김수아  
Kim Soo-a



아낙, 중국인 승객, 중국동포 주민  
A woman

<배소고지 이야기> <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 <오솔로> <페스트> <3월의 눈>  
<말들의 집>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갈매기> <메디아> <우리별>  
<함안> <헨리4세 왕자와 폴스타프> 외

남수현  
Nam soo-hyun



중국인, 중국동포 주민, 조선 이주민, 밀항자  
A chinese

<예술이 죽었다> <선을 넘는 자들> <보이갯츠겔> <오미디푸스-알려고 하는 자>  
<까뮈의 뜨거운 겨울> 외

윤서진  
Yoon Seo-jin



소년  
A Boy

데뷔

최지우  
Choi Ji-woo



소녀  
A Girl

데뷔



2004. 09. 02.

『16시, 중국 따렌-하얼빈 행 기차에 탑승하다.』  
늦은 저녁  
『여동생 백순영 집에서 축하연을 받다.  
대취하다.』

2004. 09. 12.

『단기 사천삼백삼십이년,  
서기 이천공사년 구월 십이 일 중국 따렌,  
수하물 발송 문제로 인하여  
복귀 예정 3일 초과』  
『밤, 따렌의 여관.  
홀로 방안에 박혀 무겁고 쓸쓸한 심사에 젖다.  
객창客窓. 아들 학중, 연락두절.』

2004. 09. 13.

『새벽에 들어온 아들이  
오래 날 내려다보며 말을 하다.』

2004. 09. 14.

『12시 학중,  
따렌부두에서 인천 가는 배를 타다.  
바람이 불어 7시간을 기다리다 배를 타다.  
홀로 따렌에 남다.』

2004. 09. 15.

『천신만고 끝에 유골을 들려보내다.  
조카 영욱이 도와주다.』

마지막 날

『외진 공터에서 경유를 부어 유골을 태우다.  
마지막 날.』

고국에서 첫째날

『뼈를 묻다.』

## 01 조선족? 중국동포!

우리가 흔히 부르는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한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다. 즉, 중국인 입장에서 부르는 명칭이라는 뜻이다. 최근 서울시는 언어가 사람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차별적 용어를 뿌리 뽑기 위해 ‘국어 바르게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선족’을 ‘중국동포’로 행정용어를 변경했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통계 자료를 작성할 때 ‘조선족’ 대신 ‘한국계 중국인’을 사용하고 있다.

## 02 중국동포(조선족)

19세기 중엽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까지 경제적 어려움 및 정치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한 한민족과 그 후예들이다.

## 03 만주이민사

1860년대와 1870년대 사이에 조선에서 재해와 흉년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비옥한 간도

지역으로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일제의 조선 합병은 단순히 가난 때문에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움직이는 원시적인 이동의 형태를 벗어나, 일제에 대한 울분과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한 이동과 일제의 탄압과 수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난성 이동이 주류를 형성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해 한인 인구는 1910년에 22만 명에 달하였고 1930년에는 6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제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건설하고 중국 동북지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와 식량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세웠다. 이에 따라 1년에 1만 호씩 이주시킨다는 계획 아래 한인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결과 집단이 주로 인해 1930년에 60만 명에 달했던 한인 인구가 1940년에는 1백4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일본이 패전하자 대거 귀환했지만 중국에 남은 사람도 많았다. 광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이 분단되고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발발했다. 공산당은 중국 내 잔류한 조선인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고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선족은 공산당을 지원했다. 공산당이 승리함으로써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건설되었다.

## 04 문화대혁명

중국에서 1966-1976년에 이루어진 사회주의 운동.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의 4대 구습을 타파하자’는 구호 아래 여러 문화적 자산을 파괴하였다. 고유의 민족 전통을 지닌 여러 소수민족의 문화 다양성을 계급과 이념으로 해체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생활문화 일원화의 관철을 지향하였다. 민족 전통 또한 혁파해야 할 ‘구습’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소수민족의 고유 전통을 폄하, 약화시켰다. 원적지로부터 옮겨온 혼례나 상·례 관습등과 같은 민족 고유의 생활문화들은 문화대혁명 이후 사라져갔다.

문화대혁명은 조선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이중주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기존의 민족주의 관념은 아주 큰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틈새로는 사회주의 무산계급 문화로 무장한 중화민국 국민성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이는 주류민족인 한족 동화주의로 경도되게 만들었으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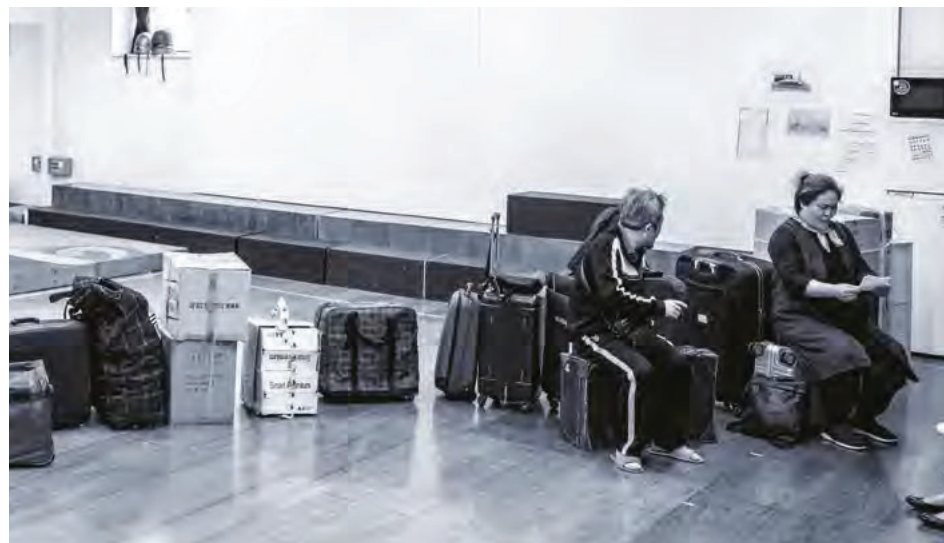
## 05 한중수교와 조선족 한국 진출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이후에 한국에 친척이 있는 중국계 한인들이 친척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진출이 시작되었고 1992년 한중수교로 본격적인 한국진출이 이루어졌다. 주로 청년층이 구직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서울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로 떠나면서 조선족 사회는 가족해체, 농촌 공동화 현상, 조선족 학교 급감, 청소년층의 정체성 상실 등을 겪어야 했다.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한인들은 3D업종에 주로 종사하며 돈을 벌고 고향에 보냈다. 귀국하기보다는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거나 혹은 재입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초기의 불법체류에서 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점차 합법적인 진출과 체류로 성격이 바뀌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도서  
정재남, 『중국 내 조선족』, 살림, 2008,  
권태환, 『세계의 한민족-중국』, 통일원, 1996,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재외한인의 역사』





작

**백하룡** Baek Ha-ryong

프로필 2페이지

연출

**최진아** Choi Jin-ah

프로필 4페이지

무대디자인

**손호성** Son Ho-seong

연극  
<선을 넘는 자들> <먼데서 오는 여자> <과부들>  
<농담> <여행> <햄릿6> <연변엄마> <미친극> <봄날>  
<오장군의 발톱> <loser> <33개의 변주곡>  
<마라 사드> <Green Bench> <남자충동> 외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소리도둑> <불의 감>  
<천사의 발톱> <사랑은 비를 타고> 외  
수상  
2014 대한민국 연극대상 무대예술상  
2007 제1회 뮤지컬어워드 무대미술상  
2007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조명디자인

**김성구** Kim Seong-gu

<추남미녀> <전쟁터의 소품> <배소고지 이야기>  
<오이디푸스-알려고 하는 자> <비평가> 외

의상디자인

**김미나** Kim Mi-na

<마른대지> <광인일가> <아리아 다 카포>  
<소설가 구보씨와 경성사람들> <외국인들> 외

음악감독

**이경은** Lee Kyung-eun

<엘렉트라> <고래가 산다> <찰리찰리>  
<선을 넘는 자들> <코카서스의 백목원> 외

음악·음향

**이승호** Lee Seung-ho

<시련> <기록을 찾아서> <5호실의 고등어>  
<염소 혹은 실비아> <진실? 거짓?> 외

영상

**윤민철** Yoon Kennikie

청운대학교 무대영상디자인과 교수  
연극  
<갈매기> <얼굴도둑> <록앤롤> 외  
창극  
<산불>  
오페라  
<라체렌틀라>  
수상  
2014 제1회 서울연극인대상 스태프상 음향·영상 부문

분장

**장경숙** Jang Kyung-suk

<나는 살인자입니다> <낙타상자> <마른대지>  
<뽀샤인의 전사들> <사막속의회개미> <아리아다카포> 외

소품

**김교은** Kim Kyo-eun

무대  
<모던타임즈> <한국인의 초상> <살로메> <씨름> <홍도> 외  
소품  
<부활> <말> <운현궁오라버니> <봄날> <오레스테스> <역적어멈과 자식들> 외

무대감독

**문원섭** Moon Won-seop

<텍사스 고모> <죽고 싶지 않아> <고등어> <2014 타조 소년들>  
<레슬링 시즌> <빨간 버스> <노란 달 Yellow Moon> <아폴로 프로젝트>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외

조연출

**이하미** Lee Ha-mi

조연출  
<리어 왕> <햄릿: 존재의 방식> <바나 외삼촌> <메멘토모리>  
<늙은 자전거> 외

출연

박상종 강해진 김수아  
남수현 성어진 윤서진  
이수미 이준영 이호철  
조남웅 최지우

스태프

작 백하룡  
연출 최진아

무대 손호성  
조명 김성구  
의상 김미나  
음악감독 이경은  
음향·음악 이승호  
영상 윤민철  
분장 장경숙  
소품 김교은  
방안지도 백경윤, 송재룡  
아역연기지도 강소희  
조연출 이하미

무대감독 문원섭  
무대진행 김영주  
의상진행 김민주  
음향오퍼레이터 김학준  
영상오퍼레이터 김재성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조명오퍼레이터 류선영  
음악감독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영상팀 김동건 박효진  
조명팀 홍유진 손민영  
유승열 임학균  
박경진  
분장팀 장경숙 전예진  
무대제작 주식회사 풀굿  
대표 이상수  
의상제작 코스튬스토리  
대표 김미나  
소품제작 꿈작업실  
대표 김교은  
영상장비임차 인터렉션랩  
대표 윤민철

조명 어시스턴트 지소연  
의상 어시스턴트 김우유  
소품 어시스턴트 이주연 최소리  
김연경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변정원 최윤영  
이송이 김율

마케팅 이정민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김효진  
조영채  
대학생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윤 임소영  
정기웅 황지연

메인디자이너 노운  
응용디자이너 WT  
대표 이지선  
홍보영상 602 STUDIO  
대표 김영준

기록 영상 미니멀랩프로덕션  
대표 전호식  
홍보사진 미오스튜디오  
대표 나승열  
연습·공연사진 이강물  
옥외광고 킨비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북빔  
대표 김은총  
홍보물·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

티켓 김보배 이현아  
김보전 김보연  
매표안내원 고은지 김다애  
김인혜 김현진  
박민주  
하우스 매니저 김나래 김수현  
안내원 김성주 권묘정  
전준형 박만수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김소희  
박채현 정이현  
김희지 정주호  
지윤아 최재훈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김철순  
제작진행 장지은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 국립극단 임직원

###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내이버(前) 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안병군 공연자료 관리  
 나수경 청년인턴

###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정은서 청년인턴

###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윤영 이승이 변정원 김을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조영채 청년인턴

###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김무석 기술감독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최슬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이민희 복무·복리후생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정보화·교육  
 최태영 인사·제도관리  
 김시내 비서·윤리경영  
 주현우 노무·자산·계약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김연지 배규림 작은극장

###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종무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새별 조남웅  
 주인영 홍아론



판매가 8,000원

출판사 걷는사람

본 희곡선은 공연장 및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극단 희곡선 뼈의 기행 | 백하룡

국립극단은 우수 희곡 개발과 작가 지원을 위해 걷는사람과 함께  
국립극단 희곡선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무대 위 빛나는 순간들이  
한국 연극사에, 관객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 희곡선1 | 1945 배상식  
국립극단 희곡선2 | 뼈의 기행 백하룡



2019. 6. 14-7. 7  
명동예술극장

# 콘서트 — 동의

니나 레인 작

연출 강량원

번역 이인수  
무대 임일진  
조명 최보윤  
의상 강기정  
음악 장영규  
분장 백지영  
소품 박현이

출연 김석주  
신소영  
양서빈  
이종무  
임준식  
정세별  
주인영

SHINSEGAE  
신희가예

푸른티켓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예스24 1544-6399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www.ntck.or.kr](http://www.ntck.or.kr)

